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존제)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부산제단 이영자 총재 초청 예배

“부산제단에서 승리제단에 혁명의 불길을 일으켜달라”



부산제단 성도들이 플루트 독주를 감상하고 있다

부산제단(김원찬 책임승사)은 7월 6일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 뜨거운 여름 날씨를 식혀주는 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이 총재는 수행원들과 감해공향에 도착하였다.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부산제단 앞에는 이 총재를 맞이하려는 신도들이 나와 있었다.

이날 예배는 조희성 구세주께서 1993. 9. 14. 설교하신 것을 비디오 영상으로 보았다. 비디오 설교에서 조희성 선생께서는 “육신의 주체가 되는 내 생각 자체가 영이요 마귀다. 감정이 마귀다. 나무와 같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이다. 너와 나를 의식하는 것이 죽을죄다. 죽을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며 ‘나’라는 마귀를 이기고 영생을 얻기 위한 주옥같은 말씀을 해주셨다.

부산제단은 이날 행사를 경축하기 위하여 플루트 연주를 선보였다. 양용순 승사가 ‘주님의 귀한 몸’, ‘온 땅에 찬양하라’ 2곡을 연주해 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이어진 2부순서에서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이 총재 말씀’이 있었다. 이 총재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이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하였다. “인사는 자유율법의 마음을 확인하는 행위이

다. 인사하는 순간 대상에 대하여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이전까지 자유율법을 여기는 생활을 했었다는 결론에 떨어진다. 인사하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마음을 바로 바꾸어 먹어야 한다. 승리제단에서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이긴자가 된다. 올바른 신앙은 일사에서 시작하여 인사로 끝난다”라며 인사가 자유율법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자 총재 말씀 요약

1980년 10월 15일 드디어 하나님은 인류 역사 6천 년 만에 마귀와의 최종 결전인 아말겟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지구와 우주의 주도권을 마귀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했다. 마귀 영에 의해서 6천 년간 죽음을 독배였던 인간 세상이 성혈과 성배의 하나님의 나라로 천지개벽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인류 역사 6천 년 이래 실제 지구의 운명을 건 처음이자 영원한 승리였다. 이 날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긴자 구세주가 진행하는 분신의 역사로 인해 생명 화합 평화 통일의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긴자 구세주의 출현으로 인해 비로

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경전과 예언서 속에 감춰진 비밀(秘密)과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다.

대학(大學) 1장에 “格物致知(격물치지) 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 천하에 다시 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며, 먼저 그 몸을 닦고, 먼저 그 뜻을 정성되게 하고, 먼저 그 지혜를 이루어야 한다. 지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의 이치를 진실되게 알아야 한다. 올바른 지혜를 가져야 뜻하는 바를 정성스럽게 이룰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서게 되며, 마음이 바로 서야 몸을 제대로 수련할 수가 있고, 비로소 집이 가지런해져서 나라가 다스려지며 마침내 천하가 화평해진다”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주인공이 나오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단체와 학교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지식인들은 그 주인공 앞에 무릎을 꿇고 배움을 청해야 한다.

“인간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의 병존체요, 인간의 ‘나’라는 자존심이 만물을 죽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 신이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를 올바르게 밝힌다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뜻이다. ‘나’라는 자존심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내 하나님처럼 여겨라’,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는 자유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

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받들어 마음을 바로잡는 비법인 성의(誠意), 정심(正心)이다.

모든 백성들 스스로가 사물이 이루어진 이치를 제대로 깨닫고 자유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이를 실천하는 백성들의 숫자와 규모에 따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자동적으로 완성되어 모든 백성이 대통령이 되고 군자가 되어 감로이슬성신만 먹고 사는 신선들이 사는 지상선국(地上仙國) 무릉도원(武陵桃源)이 건설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모르고 적용하면 국민들끼리 서로 비난하며 욕설이 난무하고, 사건 사고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죽고 죽이는 ‘민주불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백성들이 자유율법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될 때 민주공화국이 건설되고, 그 성인군자들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마음의 에너지인 중성자에 의해서 불사영생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불사영생의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해 격물치지의 주인공 이긴자 구세주가 대한민국에 출현했음을 알려야 한다. 부산제단 성도님들이 승리제단에 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달라.

이날 예배 후 많은 성도들의 얼굴에서 웃음과 미소가 번져나왔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39)

“이긴자의 몸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실 성전이다”

영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간다고 단상에 서 울며 여러분들에게 하소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이 없으십니다.

이긴자가 나와야 그 이긴자 몸속에서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사시게 되겠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집이 이긴자의 몸입니다. 태초에 아담 해와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은 오늘날 이긴자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와야 하나님의 의가 있다가 되고, 믿음이 있다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믿음이요, 천당이요, 생명과일이며, 이긴자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긴자가 같이요, 진리요 생명인 고로 이긴자가 구원의 뜻대입니다. 고로 이긴자를 소유해야 그 이긴자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0)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다”

이전에 이긴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조종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에는 이긴자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와야 주안에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긴자가 나와야 주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었고, 또 생명과를 먹을 수 없어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곧 같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천당도 있을 수가 없었으며, 하늘의 의도 없었던 고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래 전 선지자들이 꿈만 꾸던 복을 이긴자가 나오므로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스승을 만나지 않고는 득도(得道)할 수 없다

구도자에게 있어서 참 스승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구도란 신인합일(神人合一)을 추구한다.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至難)한 일이다. 그 지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걷는 가운데 구도자는 많은 장애에 부딪힌다.

명상(冥想), 기도(祈禱), 묵언(默言), 단전호흡, 요가, 참선(參禪) 등 수많은 구도의 방법론 중 하나를 불붙고 자신의 인생과 젊음 등 모든 것을 걸고 수행(修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경계(境界)에 들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자신은 가능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정도(正道)를 벗어나 사도(邪道)로 떨어지게 된다.

홀로 수행하여 신인합일의 경지에 올라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참된 스승을 만나야 정확하고 빠르게 고지(高地)에 이를 수 있다. 참 스승은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한 전문가를 말한다. 또한 구도자가 걸려 있는 장애를 모조리 간파하여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장애를 넘어 갈 수 있는 힘도 준다.

달마대사의 혈맥론(血脈論)에 나오는 말이다. “若未會亦須參善知識(아미회역수참선지식) 切須苦求(절수고구) 命心會解(영심회해) 生死事大(생사사대) - 중략- 若不急禪(약불급심사) 空過一生(공과일생

연축) 佛性自有(불성자유) 若不因師(약불인사) 終不明了(종불명료) 不因師悟者(불인시우자) 萬中希有(만중희유)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중략)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리라. 그러므로 불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끝내 밝게 깨달을 수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드물다”

한 마디로 스승 없이 깨닫고 도통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는 것이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참 스승을 만난 행운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스승의 가치를 모른다면 멍텅구리 바보이다. 승리제단의 조희성 구세주님 이외에 참 스승은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연재/ 김만철 탈북기 승리신문 최초 취재 2면

제2회 주님말씀 요절 송경(誦經)대회 개최

- 일시: 2014년 8월 12일 성탄절 2부 행사 때
- 참가대상: 개인 및 단체
- 암송 구절: 주님말씀 요절 1부부터 40번까지 중 3개
- 암송 방법: 운반, 독창, 합창 및 어떠한 형식도 가능



• 시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트로피를 드립니다.

• 제1회 대회 때는 단체 참가자들이 상을 휩쓰는 바람에 개인 참가자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 개인상을 꼭 수여하도록 하였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승리제단 신도회

주관: 승리제단 총무부

본부제단 6월 6개지역 활동 시상

3지역에서 1등 차지

“일초 일초를 이겨야 상을 받게 된다”



승리제단 신도회(회장 김상욱)는 7월 8일 구역장회의에서 본부제단 6월 활동 내역을 발표하였다. 신도회에서는 본부제단 6개 지역 월 활동 내용을 성적으로 매겨 평가 및 성적 우수자 및 지역과 구역에 시상을 하고 있는바 6월은 3지역이 지역 1등을 차지하였다. 특히 신순이 권사는 개인 1등과 구역 1등을 차지하

는 맹활약을 보여주었다.

윤봉수 대표는 “일 초 일 초가 쌓여서 오늘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이다. 오직 현재 이 일 초 일 초만 있는 것이다. 일 초를 이기면 전체를 이겨다가 되고, 일 초를 지면 전체를 졌다가 된다. 수상자들은 일 초를 이겨 오늘이 상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수상 경력이 또 쌓여 미래에 영생의 공로가 된다”고 말하며 바로 이 순간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지역 1등, 3지역(김갑용 승사, 이승에 권사)
- 지역 2등, 4지역(윤봉수 승사, 이영에 권사)
- 지역 3등, 5지역(박철수 승사, 신순이 권사)
- 구역 1등, 45구역 신순이 권사
- 구역 2등, 21구역 안명숙 승사
- 구역 3등, 38구역 김정순 승사
-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 개인 2등, 김민숙 집사
- 개인 3등, 이영에 권사*